

# 미국 장로교 제 50 주년 기념 총회에 대한 서기의 요약 및 속고

## STATED CLERK'S SUMMARY AND REFLECTIONS ON THE 50th ANNIVERSARY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회의 한 참된 가지로 모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며 ... “음부의 권세가 그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표현은 1973 년 미국 장로교(PCA)의 구성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따온 말로 이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금년도 50 주년 기념 총회의 안건 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장로교 총회 서기로서, 저는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 신앙에 진실하며,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각오를 지속하는 그 “메시지”의 주요 선언들을 계속 인용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권위의 기초를 선언합니다 ...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신성한 저자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그 전부와 모든 부분들에 있어 영감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 믿음과 실천을 위한 무오하며 충분한 척도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교리의 체계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 문답들에 제시된 개혁 신앙으로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개혁 신앙은 분파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의 진정하고 유효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 우리는 ... 세상에 휘날리는 우리 교회의 깃발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라고 의도적으로 새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조직의 위대한 목표이며, 이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임재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50 주년 기념 총회 축하

이러한 주요 선언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번 미국 장로교의 희년 총회의 특징은 놀라운 축하와 - 1,100 여 교회로부터 2,300 명 가량의 총대들이 모인 기록적인 참석을 통한 - 연합의 정신으로서, 이는 최근 수 년간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 논쟁적 모습으로부터 이번 총회를 구별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논한 안건들이 중요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다수결로 결의한 이토록 많은 진지한 안건들을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려는 소원이 최근의 귀중한 리더들의 소천과 내슈빌의 커버넌트 학교의 총기의 비극에 대한 애도의 효과와 함께 어우러져 멤피스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서로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하나 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전과 그 기간 중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부형들이 협력하여 합의에 이르기를 힘썼는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열정과 연합으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명의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확신을 가진 장로교인들인데, 이 확신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함께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황금 기념 총회의 영광스러운 예배, 뜨거운 기도와 존경심 넘치는 토론들은 그러한 확신에 대한 신선한 표현이었습니다.

기념 축하 위원회는 짐 워트 장로의 인도 아래 지난 한 해 동안 전 교단을 걸친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커버넌트 노회의 뎀피스 준비 위원회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 축하 기도, 설교, 출판 및 찬양의 여러 노력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역사와 축하의 기념 출판은 *byFaith* 편집 스태프들이 준비해 오고 있으며 이 기념해가 완성되면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신청은 <https://pca50.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해를 축하하는 일에 가장 큰 축복은 개회 첫 날 저녁에 미국 장로교를 설립하는 책임을 진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 결의문을 50 년 전 첫 총회에 참석했고 또 이 황금 기념 총회에 참석한 열두 분의 설립자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기립 박수 후에 한 분 한 분께 “설립자들에 대한 감사 결의문”을 증정했습니다.

### 50 주년 기념 총회의 특징들

지난 반 세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로 인해 주님을 높이 드리기 위해 우리는 통계를 내려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통계를 집계하기 위하여 행정 위원회와 협조해 주신 각 노회의 서기들의 지원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해에 코로나 19 이전의 규칙적인 성장 유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미국 장로교의 규칙적 성장 유형은 작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한 해에 엄청난 증가를 보인 경우는 없었지만, 50 회가 되는 해에 우리는 240 교회로 출발한 교단이 이제는 이천 개에 가까운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사만 일천 명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사십만 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축복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최근 몇 해 동안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의 성장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5월에 남 침례교단의 발표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데 2006년 이래로 삼백만 명의 교인을 잃었다는 발표였고 (이는 대략 20 퍼센트의 감소이며), 2022년 한 해에만 오십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50년 전 우리가 분리해 나온 남, 북 장로교회들이 지난 5월에 불과 지난 육 년 만에 사십만 명(우리 교단 규모임)의 성도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설립된 50년 동안에 우리의 모 교단이 모두 약 사백만 명의 교인을 잃은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진보를 자축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 봐, 우리의 현재의 성장의 추세가 소위 선 벨트로 불리는 지역의 교회들의 증가 추세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인구가 북쪽의 동부, 중서부 도시들로부터 남부로 이주한 것과 남부의 작은 교회들 중 심각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로부터의 이전의 득을 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통계 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출석이 평균 20 퍼센트 정도 감소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면역이 된 교단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을 잃은 것입니다. 현재 18세에서 34세의 젊은이들 중에 단 14 퍼센트만이 어떤 형태든지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도, 선교 정신, 언약 자녀의

우선성, 가정과 이웃에 대한 전도 및 이민 인구가 (이전에 유럽 이민자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를 재 영성화하고 있음을 감사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명확한 때입니다.

금년에 성장이 회복된 것을 축하해야 하는 동시에, 코로나 후의 한 해가 성장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과 어린이들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한 수가 증가한 것과 아울러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희망적인 통계 하나는 목회 후보생과 강도사의 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미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성경을 신뢰하고, 신앙고백에 충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는 새로운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5년 통계 요약은 참고하십시오: <https://www.pcaac.org/resources/pca-statistics-five-year-summary/>). 우리 교단은 교인의 연령층이 높은 복음주의 교단 중 하나이지만, 우리의 목회 지도층은 다른 복음주의 교단들이나 메인 라인 교단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젊습니다. 성경에 충실함을 서약하는 미래의 리더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축하하는 중요한 주님의 채워 주심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에게서 일백 국가에 육백 명에 가까운 장기 선교사들이 있고, 일천 명 이상의 국가적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 우리는 다시 두 주에 하나씩의 비율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 비율을 더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속도를 늦추었지만, 우리는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대개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미국에 일백 팔십 곳의 대학 사역이 있으며, 유학생 사역은 이십삼 개에 달하고, 해외에도 여섯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으로 학기 중 매주 이만 명의 대학생들이 미국 장로교의 캠퍼스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으로 총 기부금 액수가 십억 불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보다 사천만 불 가량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 기간 중에 미국 장로교의 모든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의 보고서들은 우리의 온라인 매거진인 *byFaith* 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여기서 (<https://byfaithonline.com>)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겸손한 감사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선포하도록 축복하시기 위해 그가 하신 일을 두 손 높이 찬양하고, 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을 서약해야 합니다.

(주: 상임 위원회로부터 받은 통계들과 기관들로부터 받은 정보 보고서들과 서기 보고서 끝에 있는 5년간의 통계 요약은 총회 총대 핸드북에 있습니다.)

### 50주년 기념 총회의 결정들

이번 총회는 휴스턴 메트로 노회 소속 크라이스트 교회의 목사인 프레드 그레코 강도 장로를 황금 기념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레코 목사는 목사 훈련을 받기 전에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갖춘 의사 진행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뛰어난 유머 감각과 헌법(BCO)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통해서 복잡한 안건들을 다루어야 했던 총회를 대단히 훌륭하게 인도했고, 마지막 날 전 날 저녁 식사 이전에 회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헌법(BCO) 수정안들

지난 해 제 49 차 총회는 열두 개의 헌법(BCO) 수정안들을 노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중 두 개는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노회들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한 마진으로 노회들을 통과했고 제 50 차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통과한 대부분의 수정안들은 우리의 징계 절차를 잘 다듬는 것과 안수에 필요한 자격 기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승인된 수정안 중 하나는 노회 권징 위원회의 결정을 노회의 최종적 결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가정 폭력과 성 폭력(DASA) 연구 위원회의 작업을 반영하여, 총회는 권징 재판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보호와 연관된 다른 여러 헌법 수정안들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수년 간 총회에서의 논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우리의 안수 요건들에 (특히 스스로 동성애의 이끌림이 있지만 독신을 맹세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헌법 수정안들을 지난 해 총회에서 부형들이 함께 수고하여 승인한 것을 노회들이 쉽게 찬성해서 금년도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해 총회에서 우리를 분열시켰던 수정안은 비록 총회에서 다수의 표를 얻어 통과되었지만, 필요한 3분의 2의 노회로부터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앞에 승인을 얻기 위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 헌의안 결정들

금년도 황금 기념해의 제 50 차 총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상당한 수의 헌의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노회의 경계에 연관된 일반적인 헌의안들에 더하여, 안수받는 직원들의 자격 검증, 직함 수여 및 징계의 기준들을 다루는 헌의안들이 열세 개나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헌의안들은 총회가 특별 위원회나 상임 위원회 (그리고 기관들)의 보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헌의안들은 우리 교단이 인종 차별과 성별 불쾌감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징 재판 절차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헌의안이 두 개가 상정되었고, 다른 교단들과의 연대나 소통에 대한 헌의안도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 총회에 상정된 네 개의 헌의안들은 노회들이 기각하였지만, 개개의 교회의 당회들이 재상정하였습니다. 헌의안들의 전체 명단은 미국 장로교 총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caga.org/resources/#overtures>).

이번 50 차 총회 기간 동안에 핵심 약속들을 위한 우리의 단합을 아름답게 보여준 것은 금년의 헌의안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노회들과 지역 당회들로부터 접수한 헌의안들을 총회에 추천하는) 헌의 위원회에서,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진행된 거의 대부분의 토론들이 합의되어 압도적인 표결로 결정된 것입니다. 전례없는 수의 헌의안들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인터넷 토의에 어떻게 미국 장로교가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반응들의 결과로 승인되지 않거나 상정한 단체들에게 “침해 없이 반송”되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의 주시해 온 헌의안들은 총회로 하여금 트랜스 젠더 시술들과, 비판적 인종 이론, 그리고 안수받지 않은 이들이 교회에서 직함을 받는 것과 참여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헌의안 12는 총회가 정부에 미성년자들을 위한 성 전환 시술을 중단하도록 청원서를 낼 것을 요구했는데, 이 헌의안은 수정되어 총회장에게 권한을 주어 임시 위원회를 임명하여 “겸손한 청원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WCF 31-4)를 기안하여 이를 미국 장로교 서기가 특정한

연방 정부 관리들에게 보내어 미성년자들에게 성별 전환을 위한 외과적 혹은 내과적인 의료 행위를 비판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또한 노회 서기들로 하여금 유사한 청원서를 주 정부들에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의안 18 은 총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사회 정의”와 비판적 인종 이론 등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것인데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장로교가 이미 인종 차별 문제는 지난 총회들과 연구 보고서들을 통하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다는 이해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의안 26 은 총회가 헌법 7-3 을 수정하여 안수받지 않은 이들에게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직함을 주는 것에 관하여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승인을 위해 노회들에게 보내질 새로운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을 안수 직함인 목사, 장로 혹은 집사라고 부르거나 이러한 직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헌의안 15 는, 헌법 53 장을 수정하여 “어떤 여성도 남성이 참여하는 집회나 예배를 포함하여 공예배 모임에서 설교하거나 권면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고 수정하도록 총회에 요청한 건으로, 그 의미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발의자들에게 반송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총회 이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헌의안들은 우리가 성적인 순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안수 요건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그레그 존슨 목사와 세인트 루이스의 미모리얼 장로 교회가 미국 장로교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이 건에 대한 열기가 식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두 개의 헌법 수정안은 금년 총회에서 별 토의 없이 압도적인 승인을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총회가 수정하여 승인한 헌법 내용은 헌의안 23 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변경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금년에 검토를 위하여 노회들에게 보내질 것인데, 아래에 장로의 성품 자격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인간의 지식에 어느 정도 능통하며, 흠 없는 생활을 하며, 믿음이 건전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온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소개와 자기 신념과 성품과 품행에 있어서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야 한다. (헌법 8-2;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한 헌법 9-3 에도 유사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형들이 이전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여 이 최근 헌법 수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들여 이루어 낸 것으로서, 오는 해에 반드시 노회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어렵게 했던 긴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이제 교회에 짐을 줌으로써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삼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헌법 수정안은 헌의안 13 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사실상 총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토의한 것인데, 이는 권징 재판에 있어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사나 형사 재판이 아닌) 교회의 재판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기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언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총대들이 이 기준이 지금의 문화 안에서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 교회 안에서 학대를 당하여 상처(트라우마)를 받은 이들이 더 이상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고, 2)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총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적 기준이 유지된 것입니다.

### 총대 위원회들의 보고들

상임 위원회들(행정 위원회, 제자 사역 위원회, 세계 선교 위원회, 국내 선교 위원회, 학원 선교 위원회)과 기관들(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교, 제네바 혜택 재단, 미국 장로교 재단, 릿지 헤이븐 회관)은 각자의 노회를 임시로 대표하는 총대 위원회들을 통하여 총회에 보고합니다. 최근 몇 해 간 주목을 받은 한 가지 쟁점은 총회 때 몇 시간 모이는 이 총대 위원회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상임 위원회들과 이사회들과 관계하여 일년 내내 수행하는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사역을 감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어떻게 강도 장로들에 대한 상임임원나 기관의 취업 관행이 그 강도 장로가 사역 자격을 받은 노회와 연계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 금년도 헌의안(헌의안 7)은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이 그들의 회의록들이 그동안 채택된 어떤 관련된 정책이 그 보고되는 각 업무 항목에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총대 위원회들이 총회 때 임시로 노회의 대표들로서 잠시 모임 뿐인데, 각 상임 위원회와 기관이 어떻게 각각의 활동에 있어 그동안의 모든 정책들을 (법률과 재정과 고용과 자격 인증 등에 관한) 수집했는지 연구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열 개의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 모두 이 요구는 그들의 직원들에게 막대한 새로운 업무 부담을 가져올 뿐 아니라, 총대 위원회들이 총회에서 몇 시간 동안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우기,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은 이런 절차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응했는데, 이는 총회가 선출한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복잡한 감독의 책임들과 총회 운영 세칙(RAO)에 명기된 총대 위원회들의 임시적 평가 의무들과 혼동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총회 총대들은 이런 반응이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총회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헌의 위원회는 헌의안 원안을 수정하여 의무화된 연례 보고를 중요한 ‘신규’ 정책들과 ‘구체적인’ 총회의 지시 사항들에 대한 기록된 응답들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대체적인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은 그런 자료들은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명료성과 평안을 위해서, 총회는 그 헌의안을 수정된대로(즉, 제안된 총회 운영 세칙 변화를 위한 수정 문구로) 승인했습니다.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총회에 보고하는 가하는 이 첫 번째 쟁점이 금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일부 총대들이 미국 장로교 재단(PCAF)과 학원 선교 위원회(RUF)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서 사안들을 다르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시 그 재단이 유산 설계 관행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활동했고 보고했다는 것에 압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 쟁점과 그 고용과 사역 자격 검증의 두번째 쟁점은 캠퍼스 사역자로 강도 장로를 고용하므로 여전히 학원 선교 위원회에 대한 총회 토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 선교 위원회는 그동안 그들이 고용하는 캠퍼스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 자격 검증을하는 노회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미국과 해외의 많은 지역들에서의 학원 선교 위원회의 빠르고 복된 확장은 다양한 행정 조직들을 통하여 되었고, 따라서 누가 개별적인 캠퍼스 사역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 대한 교회적 권위를 갖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명확성의 결여는 사역자들과, 학원 선교 위원회와 해당 노회들에게 지위적 혼란과 법적인 책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 위원회는 지난 해에 대표들을 모든 영향을 받는 노회들에게 파송하여 새로운, 표준 제휴 계약서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원 선교 위원회의 윌 허스 코디네이터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관련 노회들의 모든 학원 선교 위원회의 의장들과 줌 통신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약은 해당 노회들이 캠퍼스 사역자들의 교회적 지위와 교회 권징을 위한 권위를 유지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학원 선교 위원회가 고용 책임들을 갖고 있음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학원 선교 위원회의 코디네이터 윌 허스에 의하면, 이 설명을 듣고 총회 전에 만날 수 있었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노회들은 이 새 계약서를 이미 채택했거나 금년 가을부터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내용들은 금년 총회에서 주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학원 선교 위원회의 총대 위원회에서 더 많이 논의된 쟁점은 어떻게 상임 위원회가 이 새 계약서를 보고하는가였습니다. 총대 위원회의 결론은 신규 제휴 계약서를 단순히 학원 선교 위원회의 업무 회의록에만 넣지 말고, 학원 선교 위원회의 추천안 보고서에 넣어서 총회가 승인하게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 선교 위원회는 새로운 제휴 계약서를 내년도 총회에 올릴 추천안들에 추가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잠재적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학원 선교 위원회는 그동안이라도 노회들이 새 제휴 계약서를 채택하도록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총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프레드 그레코 총회장은 학원 선교 상임 위원회장과 학원 선교 총대 위원회장의 동의 아래 이 결정이 노회들이 새 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해소된 것이 아님과, 더 많은 노회들이 이 새 계약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며, 또한 2024 년 총회가 끝날 때까지 학원 선교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노회들의 학원 선교 위원회와 갖고 있는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총회가 총대위원회의 보고서와 새로 채택된 정책 보고에 관한 총회 운영 세칙의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립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우리의 50 주년 기념 총회의 특권들과 사명을 품으면서

우리가 금년도 황금 50 주년 기념 총회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채우심을 인해 그분을 존귀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는 귀한 리더들을 잃은 것으로 인한 각성과, 우리의 자녀들이 당한 공격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공연한 타락으로 인한 두려움에 놀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신앙의 기둥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장로교의 탄생지인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의 해리 리더, 목사이자 선구적 사상가이며 교회 개척자인 팀 켈러, 월드 하베스트 선교회의 대표이자 과거 맥클린 장로 교회에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목양했던 스티브 스몰만, 그레이트 커미션 출판사와 학원 선교 위원회와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를 이끌었던 마빈 패지트, 그리고 치리 장로이자 선교의 지도자이며 세계 선교 위원회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칼 월헬름 등입니다.

이분들과, 그리고 지역 사역단체들의 지도자들을 잃는 것과, 또한 내슈빌의 커버넌트 자녀들과 커버넌트 학교에서 가르치던 분들은 잃은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생의 현실들이 주는 도전들은 벽찬 것인 만큼, 이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먼저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오게 했던 영원한 약속들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성경의 약속들의 믿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금년의 기념해가 마치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 오직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겸손히 고백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전통의 선구자들 중 처음인 분들이 선언한 믿음은 1529년 (독일의) 스파이어 공회에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인된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를 저버린 때였다.

그때는, 일반 대중은 구원 얻는 신앙의 기본들에 대하여 무지한 때였다.

그때는,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였던 때였다.

이를 줄이면, 그때는 우리의 때와 같았고, 하지만 또한 그때는 교회가 일어나서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한 확신들을 새롭게 선언한 때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소망이나 진리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파이어에 모여서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린 자들로서 교회와 문화의 잘못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다음과 같은 말들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그 말씀의 순결한 가르침을 유지할 것을 결심했다. 이 말씀은 ... 모든 교리와 모든 삶의 확실한 기준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음부의 모든 권세와 대항하여 굳게 설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항하는 모든 인간의 허영심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지인 우리 교단의 50주년 기념 총회에서 이 성스러운 항거에 맹세할 것을 기쁨으로 재선언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과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자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며,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는 구원의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가치를 선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